Market Index / 11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 2049.20 +17.12	▲ 630.37 +7.12	▼ 57.40 -0.45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1USD	1212.86	1171.14	1EUR	1342.21	1289.85
100￥	1125.98	1087.26	1CNY	175.95	159.21

전기차엑스포 '국제적 위상' 다진다

내년 4월29일~5월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기차 다보스포럼 지향 속 지역경제 기여도
농기계·선박 등 전시 다양화…B2B 확대 추진

내년 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11일 (사)국제전기차엑스포(위원장 김대환)에 따르면 내년 엑스포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Drive Evolution, 전기차 혁신을 향해 질주하라'라는 주제(안)로 하는 엑스포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특히 국제 기구와의 공동협력을 적극 확대하는 가운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고, 내연기관 시대 종언 및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산업 전환기에 글로벌 신규 기업 시장 진입의 장 등 방향성도 확보했다. 더불어 국제휴양지 제주의 특성과 연계한 B2B, B2G도 적극 확대하는가 하면 제주 대표 마이스로 관광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시분야와 관련 자동차 중심에서 농기계와 선박 등 e-mobility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한 것 역시 내년 엑스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엑스포 후원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8개 정부부처 및 외청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획되고 있다.

분야별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전시분야는 기존 완성차 기업 중심이 아닌 신규 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초일류 외국기업 유치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컨퍼런스 및 B2B(Business to Business)와의 연계를 적극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컨퍼런스 분야는 기존과 같이 전시와 연동하면서 컨퍼런스별 주관기관과 협의해 주제 및 방향, 개용 등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오사마 하사나인 Rising Tide Fund 회장 및 전기차 포뮬러 Korea 2020 조직위와 공동협력 방안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엑스포측은 설명했다.

B2B는 제주 특성상 B2C(business to consumer)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비중있는 기업 및 정부기관 참여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부대행사는 보다 더 다양하게 꾸며질 전망이다. 제3회 전기차 컨셉 디자인 공모전을 포함해 제2회 e-스포츠 챌린지와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자 시승 시연외에 한라산 1100도로 전기차 퍼레이드 등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포 김대환 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 라이징 타이드 펀드와 세계전기차협의회 등 글로벌 기구와 공동협력을 통해 전기자동차 다보스 포럼으로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엑스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획,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한일 여행 수요 감소 피해 업체 특별 융자 받으세요" 문체부, 150억원 긴급 편성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양국의 여행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일 여행 수요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특별 융자 받을 수 있다.

일본 여행 취소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국외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융자 한도가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기존 1.5%보다 0.5%포인트 낮은 1%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특별융자 대상업체는 기존 융자가 있더라도 융자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5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27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농협과 마늘제주협의회가 유통난을 겪고 있는 2019년산 제주마늘의 판로 개척을 위해 2000t을 대만에 수출한다. 11일 24t을 첫 선적했다.

추석에 고향 대만으로 가는 '제주남도마늘'

마늘 판로 개척 2000t 수출
농협, 고육지책 선택 토로

제주농협(본부장 변대근)과 마늘제주협의회(회장 이창철)는 최근 수확 이후 가격 침체로 인해 유통이 막혀있는 2019년산 제주 마늘의 판로 개척을 위해 2000t을 대만에 수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정농협은 이달 들어 해외업체 상담 및 수출작업을 착실히 준비, 마침내 이날 첫 물량인 24t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1대를 선적했다.

원래 남도마늘은 1976년 홍콩을 통해 중국 상해지방의 조생종 마늘을 도입됐다. 생산력 검정, 증식·보급을 거쳐 1983년부터 남도마늘로 명명됐으며 마늘 재배 농업인들은 '대만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은 "이번 제주마늘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것은 침체된 올해산 남도마늘 유통의 숨통을 트기 위해 조합원들이 일부 손실을 감수하며 힘겹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격 타산이 맞지 않아 국내산 마늘 수출은 거의 없었지만 그만큼 올해산 국내 생산 마늘 가격이 낮게 형성되다 보니 농협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마늘 유통의 어려움을 전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볼턴 보좌관 퇴진과 정책적 변화

증시 짓눌렀던 리스크 해소 기대감 고조

대북협상 온건적·단계별 비핵화 정책 진행 관측
미 정부 외교정책 전향… 자산시장 움직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며 백악관 안보 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퇴진하였다. 현지시간으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볼턴의 퇴진을 공개하였으며 그가 빈번히 사용한 트윗 해고가 이번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 안보 투톱으로 꼽혔던 볼턴에게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번 볼턴 보좌관의 해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에만 총 9명의 내각을 교체하였다. 과거 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교체이며 특히 NSC 보좌관만 3번째 교체이다.

교체 배경에는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보였으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진행된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지도자들과 협상 폐기를 주도한 점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며 경질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이 경질됨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리면서 대북 협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상당부분 유한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이란 등 외교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며 그 동안 외교정책이 강경파 안보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온건파 국무부 중심으로 힘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외교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자산시장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볼턴 보좌관 경질 소식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온건적 전향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에서 이견을 보인 부분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 및 완전 비핵화를 주장하였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단계별 비핵화를 통한 비핵화를 주장하였다.

이번 볼턴 보좌관이 경질되었으며 9월말 이어질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준비하면서 강경파는 대북 정책라인에서 배재하고 온건적이고 단계별 비핵화를 통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대선 이전에 어느 정도 대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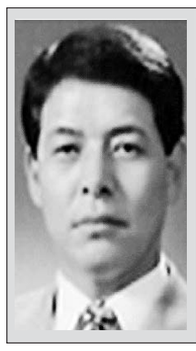
또한 9월 하순부터 진행되는 UN총회에서 이란 대통령과 조건없는 만남을 하겠다고 전달하는 등 2020년 대선까지 대립보다는 성과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에 향후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과 이란, 북한, 중국과의 대립이 완화되면서 증시를 짓눌러 왔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 향후 진행될 뉴스플로어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이에 맞춘 자산시장의 움직임의 변화를 주시한다면 그동안 힘든 터널을 지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접)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접)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김녕해안도로접 2474㎡ 15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폐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상명리 조립식주택60㎡/대430㎡ 1.5억
- 수산봉 저수지인근 카페용경관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굿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접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접 대지조성 481㎡ 6.5억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독지 638㎡ 3.3억
- 선흘검은오름 북측 주택용지 1002㎡ 2.2억
- 신촌 2종주거지역 대 157㎡ 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오라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